여민동락與民同樂 하는 미디어로 지속하길...

TV조선의 개국방송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.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주로부터의 시선, 해저에서 바라 본 대한민국 등 새로운 시야를 펼쳐 새로운 방송의 서장을 장식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. 아울러 특별 보도프로그램과 개국 축하쇼, 조선일보의 장점을 살린 뉴스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과 귀를 통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.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미디어의 시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